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87호 【루게 제24335호】 주제 102(2013)년 10월 14일 (월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내각총리인 박봉주 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백계룡 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박명순 동지, 경공업상 안경수 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현지에서 공장의 일꾼들이 맞이하였다.

우리 인민들에게 더 좋은 옷감들을 더 많이 안겨주기 위해 마음써오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송고한 뜻을 심장깊이 새겨안은 공장의 일꾼들과 방직공들은 자기 옷감을 짜는 심정으로 찬생산을 늘여나가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였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있는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는 백두산3대장군들의 불멸의 혁명사적이 뜨겁게 어러워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1948년 10월 10일 잡초만이 무성하던 대동강기슭에 몸소 공장터전을 잡아주시고 수십차레나 현지지도의 거룩한 자욱을 새기시며 인민들의 입는 문제해결을 위해 로고와 심혈을 바쳐오시였다.

아버이장군님께서서 위대한 수령님의 념원을 꽃피우시기 위하여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김정숙평양방직공장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공장이 나라의 찬생산에서 큰 몫을 담당수행하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가지고 학생교복과 인민들이 입을 여러가지 옷들을 만들면 거리와 마을이 환해질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공장의 후방사업정형에 대하여도 자세히 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제품생산량을 끊임없이 늘리자면 생산의 직접적담당자들인 로동자들에게 훌륭한 생활조건을 보장해주는데 신차적인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공장합속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로동자들이 먹는 국밥까지 친히 보아주시였으며 아버지장군님께서 공장합속을 잘 지어줄데 대해 간곡히 당부하시였다 하시면서 자신께서 책임지고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 훌륭한 합속을 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공장합속부지도 몸소 정해주시고 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일일이 풀어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뜨겁게 어러워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귀중한 사적물들과 사적자료들을 보시며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뜨거운 사랑과 세심한 지도속에서 공장이 걸어온 발전력사를 감회깊이 추억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김정숙평양방직공장 하나만 놓고보아도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인민에 대한 헌신의 역사를 잘 알수 있다고, 이 공장에는 대원수님들의 인민관이 집대성되어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종합생산지령실, 인건전직장, 견본실을 비롯한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생산정형과 새로 장비한 방직설비들의 기술적특성, 제품의 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공장의 일꾼들과 방직공들이 인민생활향상대진군의 포성을 크게 울릴데 대한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는데 대하여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특히 최근 당에서 새롭게 마련해준 현대적인 방직설비들을 가지고 명주처럼 부드럽고 윤기가 나는 여러 가지 질 좋은 인견천들을 대량적으로

생산하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성능이 대단히 높은 수압직기를 비롯한 현대적인 방직설비들을 그르히 갖추어놓은 결과 많은 로력을 절약하면서도 생산을 장성시키고 제품의 질을 높일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방직설비들의 고속도화와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계속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 질 좋은 옷감과 각종 천들을 더 많이 생산하자 이것이 당의 의도라고 말씀하시였다.

공장에서 생산한 양복 및 사즈천들의 질이 높다고 하시면서 이런 천들을

투쟁에서 전초기지가 같은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이 지난 기간 해놓은 일도 많지만 해야 할 일이 더 많다고 하시면서 공장앞에 나서서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친히 공장에 찾아오시여 따듯이 손잡아 이끌어주시며 새로운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시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 다함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올리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안겨주시신 영예로운 과업을 빛나게 관찰 총정의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미림승마구락부를 찾으시고 준공준비를 잘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미림승마구락부를 찾으시고 준공준비를 잘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최룡해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마원춘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원수님을 건설에 동원된 군부대지휘관들이 맞이하였다.

우리당이 인민들에게 안겨주는 사랑의 선물인 미림승마구락부를 로동당시대의 창조물로 일떠세울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산악같이 일떠선 군인건설자들과 성, 중앙기관 일군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미림승마구락부 준공의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다.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승마구락부가 한눈에 안겨오는 인공산에 오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당의 의도대로 근로자들이 충분한 휴식을 할수 있게 아담한 정각과 천막휴식장을 특색있게 일떠세운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인공못 주변에 뽕나무를 깔아주며 인공산에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보기 좋게 심는것을 비롯하여 미림승마구락부 환경정리를 손색없이 마무리하는데서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들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당에서 승마구락부운영에 필요한 말 60여필을 보내주겠다고 하시면서 말들에 대한 관리를 특별히 잘하여야 한다고 이리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군인건설자들과 성, 중앙기관 일군들이 미림승마구락부 준공준비를 빈틈없이 잘하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승마구락부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혁명사적교양실을 비롯한 미림구락부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혁명사적교양실에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진 문헌들을 더 밝고 정중히 모시며 사적물 전시를 잘하는데서 나서는 하시였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완공된 문수물놀이장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우리 인민들에게 안겨주시는 사랑의 선물인 문수물놀이장이 당창건기념일을 맞으며 훌륭히 일떠섰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로동당시대의 자랑스러운 창조물로 완공된 문수물놀이장을 돌아보시였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최봉해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마원춘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을 건설에 동원된 군부대지휘관들이 맞이하였다.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에 대규모의 종합적인 물놀이장으로 새로 건설된 문수물놀이장은 우리 인민들이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는 또 하나의 현대적인 문화휴식터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세계적인 물놀이장건설을 발기하시고 그 러던까지 잡아주시였으며 여러차례나 현지에서 물놀이장건설을 최상의 수준으로 완공하는데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이라면 천만산악도 단숨에 떠옮기는 군인건설자들은 결사관철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방대한 문수물놀이장건설을 불과 9개월동안에 끝내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10만 9,000㎡에 달하는 방대한 부지에 각종 물끄림대와 수조들로 꾸러진 야외물놀이장과 종합적인 실내물놀이장, 실내체육관, 문수기능회복원이 특색있게 건설된 문수물놀이장에는

인민들이 사계절 아무런 불편도 없이 물놀이를 즐기며 휴식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건들이 그즈히 갖추어져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문수물놀이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준공식준비정령을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실내물놀이장의 흥에 모신 어버이장군님의

천연색석고립상을 오래도록 보시며 우리 인민들에게 종합적인 물놀이장을 꾸려주시려고 마음쓰신 장군님께서 훌륭히 완공된 문수물놀이장을 보시였으면 얼마나 기뻐하시였겠는가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실내물놀이장의 각종 물놀이수조, 한층탕, 사와

게 하라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 펼쳐나선 군인건설자들의 투쟁에 의하여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수 있는 문수물놀이장이 훌륭히 일떠설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실, 편의봉사시설들을 당에서 비준해준 설계의 요구대로 정말 잘 꾸렸다고, 구석구석 흠잡을데가 없다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물놀이장의 식당들을 여러단위에서 운영할데 대한 과업을 주었는데 해당단위에서 짧은 기간에 식당들을 특색있게 꾸려놓고 봉사준비를 착실히 해놓았다고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야외물놀이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물놀이장이 문을 열면 인민들과 청소년들이 무척 좋아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문수물놀이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지니고 봉사활동을 잘하며 물놀이장의 모든 시설들을 적극 애호관리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문수물놀이장이 당이 바라는 기준에 도달하였다고 하시면서 하루빨리 준공식을 진행하여 인민들이 찾아와 마음껏 휴식하

류경구강병원 개원식 진행

【평양 10월 13일발 조선중앙통신】우리 당의 손길아래 수도 평양의 문수지구에 류경구강병원이 훌륭히 건설되였다.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면모를 보여주며 종합적인 구강치료봉사기지로 솟아난 류경구강병원은 우리 당이 인민들에게 안겨주는 또 하나의 사랑의 선물이다.

현대적인 구강종합치료기들과 진단치료실, 구급치료실, 재료준비실, 약국, 상점, 어린이놀이장을 비롯하여 의료봉사활동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이 충분히 갖추어진 구강치료봉사기지가 마련됨으로써 근로자들의 건강증진에 크게 이바지하게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뜨거운 은정속에 현대적인 치료봉사기지로 새로 일떠선 류경구강병원 개원식이 13일에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개인식장에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만세!》라고 쓴 구호판들이 세워져있었다.

또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인민관을 따라배우자!》, 《조선인민들은 참다운 인간생활의 기사가 되자!》라고 쓴 구호판들이 세워져있었다.

박봉주동지, 김기남동지, 최태복동지, 양형섭동지, 문경덕동지와 김원준 내각부총리, 판계부총리, 건설자, 병원종업원들,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개인식에 참가하였다.

개원식은 《인민이 사랑하는 우리 령도자》 노래주악으로 시작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최태복동지가 개원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당의 은정속에 번듯하게 일떠선 류경구강병원은 구강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물질기술적조건들이 보건의학적요구에 맞게 충분히 갖추어져있으며 건축의 조형화, 예술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현대적인 의료봉사기지로 새로 일떠선 류경구강병원이 새로 건설됨으로써 인민들의 요구와 구강의학발전의 현세에 맞게 의료봉사수준을 보다 높여나갈수 있게 되였으며 인민들에게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을 더욱 원만히 안겨줄수 있게 되였다.

사회주의문명강국으로 비약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으로 일떠선 류경구강병원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솟아난 인민사랑의 기념비적창조물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들고 혁명의 최후 승리를 이룩하며 삼천리강토우에 온 세계

가 우리러보는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입니다.》

우리 인민의 건강증진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오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뜻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몸소 구강병원건설의 전과정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병원터전도 잡아주시고 강력한 건설력량을 보내주시였으며 설계로부터 치료설비보장과 의료인군들을 꾸리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지도를 주시였다.

신군혁명령도의 바쁘신 속에서 삼복의 무더위와 비내리는 곳은 날도 가리지 않고 건설현장을 찾으시며 병원건설과 운영준비사업을 잘해나갈데 대하여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완공단계에 이른 구강병원을 또다시 찾으시며 내부마감작업정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건설을 마무리하고 인민들이 실질적인 덕을 볼수 있게 병원운영에서 나서는 강력적과업들을 제시하시였으며 병원이름을 《류경구강병원》으로 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한없이 숭고한

원인색석고립상을 오래도록 보시며 우리 인민들에게 종합적인 물놀이장을 꾸려주시려고 마음쓰신 장군님께서 훌륭히 완공된 문수물놀이장을 보시였으면 얼마나 기뻐하시였겠는가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실내물놀이장의 각종 물놀이수조, 한층탕, 사와

게 하라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 펼쳐나선 군인건설자들의 투쟁에 의하여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수 있는 문수물놀이장이 훌륭히 일떠설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연설자는 류경구강병원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완공을 앞둔 병원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주신 강력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구강질환들에 대한 예방과 치료 사업을 최상의 수준에 올려세우며 병원관리 운영과 의료봉사를 잘하여 당의 령도업적을 끝없이 빛내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는 세상에 자랑할만 한 인민의 병원을 일떠세워준 당의 뜨거운 은정을 가슴에 새기고 모든 설비와 기계들을 눈동자와 같이 애호하여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구강병원건설에 참가한 건설자들은 앞으로 도로 건설의 대원수님을 펼쳐가는 당의 웅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중요건설장마다에서 빛나는 위훈을 창조해나갈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연설자는 모두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두리에 입심단결하여 내 나라, 내 조국을 인민의 리상과 념원이 현실로 꽃피는 사회주의문명강국으로 빛내이기 위한 과감한 투쟁을 전개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개원식은 《영광을 드리자 위대한 우리 당에》 노래주악으로 끝났다.

참가자들은 새로 일떠선 류경구강병원을 돌아보았다.



어머니당의 뜨거운 사랑속에 궁궐같이 일떠선 옥류아동병원 개원식 진행

【평양 10월 13일발 조선중앙통신】폭처수려한 대동강기슭의 문수지구에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한 옥류아동병원이 일떠섰다. 최신키의료설비들을 갖춘 어린이들의 종합병원인 옥류아동병원은 후대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어머니당의 숭고한 미배사상의 결정체이다. 병원부지를 선정할 때로부터 불과 9개월 남짓한 기간에 세계의 그 어느 아동병원과도 비할바없는 최상급의 아동의료봉사기지가 당장건 68층을 계기로 일떠선것은 경에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명명지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우리 혁명군대가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을 벌여 이룩한 기적이다.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뜨거운 은정속에 훌륭히 일떠선 옥류아동병원 개원식이 13일에 진행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사과

를 위한 평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개원식장에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 만세!》라는 구호판들이 개원식장에 세워져있었다. 또한 《위대한 평도자 김정은동지의 조국관, 인민관, 후대관을 실천으로 받들자!》, 《우리의 어린이들을 튼튼하고 지혜롭게 키우자!》라는 구호판들이 세워져있었다. 박봉주동지, 김기남동지, 최태복동지, 양형성동지, 문경덕동지, 최부일동지와 김용진 내각부총리, 관계부서 일군들, 조선인민내무부 장관, 병원종업원들,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개원식에 참가하였다. 개원식은 《인민이 사랑하는 우리 평도자》노래주악으로 시작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최태복동지가 개원사

를 하였다. 연설자는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후대사상, 미배사상에 의해 일떠선 옥류아동병원 개원식을 가지게 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옥류아동병원은 우리 어린이들이 병을 모르고 세상에 부럼없이 마음껏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마음쓰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뜻을 실현해나가는 우리 당의 구상과 의도가 철저히 구현된 로동당시대의 또 하나의 기념비적창조물이다. 연건속면적이 3만 2, 800㎡이고 6층으로 이루어진 병원은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마련해주신 최신키의료설비들을 갖춘 각종 치료 및 처치실, 수술실, 입원실들은 물론 입원한 어린이들이 공부할 교실들과 놀이장, 휴식장으로 특색있게 꾸러진 현대적인 아동의료봉사기지가

를 훌륭히 갖춘 옥류아동병원이 건설되어 어린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의료봉사활동과 과학연구사업을 첨단수준에서 진행할수 있게 됨으로써 우리 당 보건정책의 정당성과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굳게 믿어주시고 있다. 어린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우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뜻을 받들어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아동병원을 건설할것을 발기하시고 강력한 건설력량을 편성해주셨으며 세상에 둘도 없는 병원으로 일떠서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었다. 병원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공사를 다그치면서 나서는 방향과 방법을 확실히 밝혀주시고 계기되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해결하시며 최신키의료설비들을 모조 마련 해주셨었다. 완공을 앞둔 건설장을 또다시 찾으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치료조건을 더욱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여러 수술실들의 무균화, 무진화를 실현할수 있는 방도도 세심히 가르쳐주시었으며 병원이름을 《옥류아동병원》으로 친히 명명 해주셨었다.

경에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크나큰 믿음에 무한히 고무된 군인건설자들은 당이 결심하면 무조건 한다는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산악같이 일떠나 《마식령속도》창조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켰다. 방대한 기술과학공사와 골조공사를 짧은 기간에 끝냈을뿐아니라 불리한 조건에서도 건설전투를 중단없이 즐기게 되고나같은 조종 아동병원건설을 제기일에 최상의 수준에서 완성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내각과 보건성, 화학공업성을 비롯한 성, 중앙기관들에서는 경에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건설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 비품들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해주었다. 연설자는 옥류아동병원이 훌륭히 건설되어 개원하게 된것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뜻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자는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정력적인 지도와 헌신적인 투쟁의 고귀한 결실이며 당의 부름에 무한히 충직한 군인건설자들과 근로자들이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투쟁한 결과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참가자들의 다함없는 충정의 마음을 담아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우리 어

린이들을 제일로 사랑하시며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신 위대한 대원수님들께 숭고한 경의를 드리며 후대들을 위해 온갖 심혈과 노력을 바치시며 현대적인 옥류아동병원을 일떠 세워주시신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께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렸다. 경에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장군님께서 생전에 구상하고 실천해오셨던 사업들을 충직하게 계승하고 완성하여 장군님의 관심과 염원이 이 땅에 현실로 펼쳐지도록 해야 합니다.》 연설자는 위대한 수령님과 어머니장군님을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철든 불변의 신념을 간직하고 대원수님들의 유언관철을 위한 투쟁에 깨끗한 충정의 마음을 바치는 순결의 인간, 량심의 인간이 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병원 의료인들과 종업원들은 어린이들에 대한 치료에방과 과학연구사업, 병원운영을 실속있게 하여 우리 어린이들에게 당과 국가의 고마운 보건의책이 더 잘 미치도록 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당의 은정이 깃들어있는 의료설비 하나, 건물 한부분이라도 잘 에호관리하여 환자치료와 과학연구사업에서 큰 은이 나게 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군인건설자들은 옥류아동병원을 훌륭히 일떠세운 그 정신, 그 기백으로 강성국가건설의 전구마다에서 계속 빛나는 위훈을 세워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위대한 평도자로, 자애로운 어머니로 높이 모셔 우리 인민들과 어린이들은 세계가 우리러리는 친하게일국에서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을 누리게 될것이라고 말하였다. 연설자는 모두가 당의 평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인민의 리상과 념원이 현실로 꽃피는 사회주의문명국으로 빛내이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개원식은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노래주악으로 끝났다. 참가자들은 새로 건설된 옥류아동병원을 돌아보았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외국순님들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13일 사회당출신 국제상원의원인 장플로드 프레콩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프랑스 여러 정당출신 국제상원의원들의 조선연구그룹바다포단 성원들을 비롯한 외국순님들이 경의를 표시하였다. 그들은 시대와 력사앞에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린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안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업적을 우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에서 그들은

대원수님들과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그들은 훈장보존실들과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현지지도와 외국방문의 길에서 리용하신 승용차와 전동차, 배, 펠라보존실들을 우리러 살펴보았다. 손님들은 방명록에 글을 남기였다.

애국으로 꽃피는 청춘시절

평양 외국어 대학에서
원외의 영예를 지닌 청년들도 있었고 김일성청년영예상을 받아안은 학생들도 있었다. 지난 1월 겨울방학때였다. 사회정치활동을 진행하던 원외, 리일철, 백남일동무들 비롯한 영어학부의 학생들은 만수대창작사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을 비롯하여 영상이미 작품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형성하기 위한 창작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만수대창작사의 창작가, 형성원들을 도와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을 높이 모시는 사업에 충성을 바칠 한마음으로 가슴을 불태웠다. 중국어학부의 리수련동무 역시 그러하였다. 며칠후 그들은 성의껏 준비한 지원물자들을 가지고 만수대창작사에 찾아가 창작가, 형성원들에게 안겨주며 위대한 장군님을

그후 11명의 대학생들은 만수대창작사의 창작가, 형성원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더 힘차게 벌였다. 인민군대를 물심양면으로 적극 원호하고 사회주의건설장들에 지원물자를 보내주며 애국의 길을 더 즐기게 이어갔다. 전술철동무는 우리러 이렇게 말하였다. 《경에하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대학생들을 비롯한 우리 세 세대 청년들은 참다운 애국자로, 고결한 사상정신적품모와 높은 실력을 지닌 혁명인으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우리 청년들은 내 나라의 자랑입니다.》 우리와 만난 11명의 청년대학생들은 한결같이 자기들이 발휘한 소행은 세 세대 대학생들의 웅대한 본분이라고 하면서 애국충정의 한결에서 청년도 학생도 빛내여갈 결심을 토로하였다. 그들은 보며 우리는 생각하였다. 이런 훌륭한 청년들이 있어 이 땅의 미래가 창창하고 나라가 강성부흥하는것이라고. 본사기자 은 별

2013년 아시아 19살미만 녀자축구선수권대회 소식

우리 나라 팀이 중국팀을 1:0으로 이겼다
2013년 아시아 19살미만 녀자축구선수권대회가 중국의 남경에서 계속 진행되고있다. 우리 나라 팀과 중국팀사이의 경기가 13일에 있었다. 경기시작부터 드센 공격을 들

이데면서 상대편 문전을 위협하던 우리 팀은 전반전 5분경 11m차기기로 귀중한 찬스를 넣었다. 우리 나라 팀은 15일 만마리파 세번째 경기를 하게 된다.

조로외교관계설정 65돐에 즈음하여 로씨야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서 연회 마련

조로외교관계설정 65돐에 즈음하여 로씨야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서 11일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이고리 모르콜로브 로씨야의무성 부총장과 국가회의 지역정책위원회 제1부위원장인 블라디미르 미르조자, 국방성, 경제발전성, 교육과학성, 로씨야철도주식회사, 과학원 국동연수소, 조선인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친선 및 문화협조 로씨야협회, 출판보도부 문인들 등이 초대되었다.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령사대사부와 대사관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먼저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함께 계시는 립상 화에 인사를 드리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혁명생애를 담은 사진문헌들과 우리 공화국이 걸어온 자랑찬 로정을 보여주는 사진들을 돌아보았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우리 나라 령사대사께서는 지난 기간 조로관계가 두 나라 평도자들의 관심속에 끊임없이 강화발전되어왔다고 하면서 특히 외교관계설정 65돐을 맞는 올해에 두 나라 평도자들의 합의에 따라 쌍무경제협조의 본보기로 훌륭히 개진된 라진-하산철도를 비롯하여 여러 분야에서 친선적인 교류와 인도의협조가 적극 추진되는데 언급하였다. 그는 최고위급회담들에서 이룩된 합의와 조로공동선언들의 정신을 리행하며 두 나라 인민들의 지향과 념원에 맞게 쌍무친선협조관계를 가일층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

개척자의 영예를 계속 떨쳐가도록

대성
경에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일군들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누구보다 애국의 열정을 불타야 하며 언제나 애국투쟁의 선봉에서 서서 인민들과 함께 애국의 구슬땀을 바쳐야 합니다.》 세포동관건설전투장을 떠난 리고있었다. 하지만 차창밖을 바라보는 대성지도국 책임일군의 마음은 개운치 못하였다. 돌격대 일군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계속 귀에 맴돌았던것이다. 《돌격대원들이 집에 온 편지를 받아보는 날이면 얼마나 좋아하시지 모릅니다.》 메사롭게 한 말이었지만 책임일군은 그 이야기를 스쳐보낼수가 없었다.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 일군의 자서전을 뚜렛이 새겨갈 소중한 지향을 안고 애국충정의 구슬땀을 바쳐가는 돌격대원들이었다. 이런 그들이 돌격대생활에서 조금이라도 불만이 있을새라 지난 기간 여러모로 원심을 써온 책임일군이었다. 하지만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자기 사업의 빈주석을 보는것만 같았다. 《돌격대원들이 가경과 동무들의 부락을 언제나 잊지 않고 개척자

대성의 영예를 계속 떨쳐가도록

대성
경에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일군들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누구보다 애국의 열정을 불타야 하며 언제나 애국투쟁의 선봉에서 서서 인민들과 함께 애국의 구슬땀을 바쳐야 합니다.》 세포동관건설전투장을 떠난 리고있었다. 하지만 차창밖을 바라보는 대성지도국 책임일군의 마음은 개운치 못하였다. 돌격대 일군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계속 귀에 맴돌았던것이다. 《돌격대원들이 집에 온 편지를 받아보는 날이면 얼마나 좋아하시지 모릅니다.》 메사롭게 한 말이었지만 책임일군은 그 이야기를 스쳐보낼수가 없었다.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 일군의 자서전을 뚜렛이 새겨갈 소중한 지향을 안고 애국충정의 구슬땀을 바쳐가는 돌격대원들이었다. 이런 그들이 돌격대생활에서 조금이라도 불만이 있을새라 지난 기간 여러모로 원심을 써온 책임일군이었다. 하지만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자기 사업의 빈주석을 보는것만 같았다. 《돌격대원들이 가경과 동무들의 부락을 언제나 잊지 않고 개척자

대오의 기수

원들은 가슴이 뜨거워올랐다. 신성부총무는 항상 그렇게 대오의 앞장에서 충신의 돌과구를 열어나가며 중대를 혁신으로 이끌어왔다. 대원들에게 동발시공방범과 탄핵은 묘리를 배워주도록 하고 밤새워 그림 체단장의 울리골뎀 중단당도 단면도면을 경벽에 걸어놓고 중단기합을 진행하게 하는 중대장, 부모없는 한대원의 결혼상도 차려주며 서로 돕고 이끄는 기풍이 높이 발휘되도록 중대장을 전후력으로 화끈한 집단으로 꾸러가는 신성부총무, 단합된 힘으로 중대는 짧은 기간에 불락구간을 극복함으로써 하반년 석탄생산에 다그침을 보이는 신성부총무가 대원들이었다. 석탄생산은 내남이 더욱 늘어났다. 로동동원 김철 일

베네수엘라 대통령에게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신임장 봉정

니콜라스 마두로 모로소 베네수엘라공화국 대통령에게 2일 특명전권대사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신임장 봉정행사는 경에하는

대통령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시하고 경에하는 김정은동지께 자신의 충심으로 되는 인사를 전하여드림을 대사에게 부탁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니콜라스 마두로 모로소 대통령에게 보내시는 인사를 전하였다. 그는 또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의 인사를 전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한 사람 같이 떨쳐나

단천시 정비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한사람같이 떨쳐나 마을과 일터를 알뜰히 꾸리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농장에서 마을과 일터를 일신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 사업을 굳기있게 밀고나가고있다. 농장에서는 공동생활과 살림집들에 대한 의장제바르키, 새로 포장길을 내는 사업을 진행하였

